KKUMBAON DIGITAL LIBRARY · BIBLICAL FEASTS & REDEMPTIVE HISTORY HALL

성경 절기와 구속사 대백과 (전 12권 완결)

— 여호와의 정하신 때(모아딤)로 읽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활·재림 —

01. 〔성경 절기 총론〕 여호와의 정하신 때, 모아딤 — 레위기 23:1–4 · 골로새서 2:16–17
— 봄·가을 절기로 읽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시간표

02. 〔절기 01 · 주간 절기〕 안식일(샤바트) — 창세기 2:1–3 · 출애굽기 20:8–11 · 마태복음 11:28–30
— 창조의 안식과 출애굽의 해방에서 그리스도의 참 안식으로

03. 〔절기 02 · 봄 제1절기〕 유월절(페사흐) — 출애굽기 12:1–14 · 레위기 23:5 · 고린도전서 5:7
— 문설주의 어린양 피와 구속의 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04. 〔절기 03 · 봄 제2절기〕 무교절(마초트) — 출애굽기 12:15–20 · 레위기 23:6–8 · 고린도전서 5:6–8
— 누룩 없는 고난의 떡과 거룩한 출애굽의 행진

05. 〔절기 04 · 봄 제3절기〕 초실절(비쿠림) — 레위기 23:9–14 · 고린도전서 15:20–23
— 안식일 이튿날 흔들어 바친 첫 보리 이삭과 부활의 첫 열매

06. 〔절기 05 · 봄 제4절기〕 칠칠절·맥추절·오순절(샤부오트) — 레위기 23:15–22 · 사도행전 2:1–4
— 시내산 언약에서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과 두 덩이 유교병까지

07. 〔절기 06 · 가을 제1절기〕 나팔절(욤 테루아) — 레위기 23:23–25 · 민수기 29:1 · 데살로니가전서 4:16
— 일곱째 달 첫날 울려 퍼지는 숫양 뿔나팔(쇼파르)과 영적 각성의 부르심

08. 〔절기 07 · 가을 제2절기〕 대속죄일(욤 키푸르) — 레위기 16:1–34 · 레위기 23:26–32 · 히브리서 9:11–12
— 일 년에 단 한 번 지성소 속죄소로 들어간 피와 아사셀 염소,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속죄

09. 〔절기 08 · 가을 제3절기〕 초막절·수장절(수코트) — 레위기 23:33–43 · 요한복음 7:37–38 · 요한복음 8:12
— 광야의 초막과 실로암 물 붓기 예식, 세상의 빛과 생수로 오신 예수님

10. 〔절기 09 · 구속 역사 절기〕 부림절(푸림) — 에스더 9:20–28 · 에스더 4:14–16
— 죽음의 제비(푸르)가 구원의 잔치로 뒤집힌 역전의 날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선물

11. 〔절기 10 · 성전 정결 절기〕 수전절(하누카) — 요한복음 10:22–30 · 다니엘 11:31–32
— 더럽혀진 제단을 허물고 다시 밝힌 성전 등불과 솔로몬 행각을 거니신 참 성전 예수님

12. 〔절기 11 · 안식의 완성〕 안식년과 희년(요벨) — 레위기 25:8–22 · 이사야 61:1–2 · 누가복음 4:18–21
— 오십 년마다 울리는 자유의 뿔나팔, 땅과 사람의 회복, 주님의 은혜의 해

〔성경 절기 총론〕 여호와의 정하신 때, 모아딤 — 봄·가을 절기로 읽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시간표

〔성경 절기 총론〕 여호와의 정하신 때, 모아딤 — 봄·가을 절기로 읽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시간표 (· Moadim) · 레위기 23:1–4 · 골로새서 2:16–17

1. 절기 개관 · 구속사의 시간표와 고고학·농경 배경

1-A 절기의 시기 및 농경·역사적 자리 (유대 종교력 제1월(니산월)~제7월(티슈리월) 및 주간·안식 주기)
이스라엘 남부 세펠라의 고대 성읍 게셀(Gezer)에서 발굴된 주전 10세기 솔로몬 시대의 석회암 서판 『게셀 농경 달력(Gezer Calendar)』에는 일 년 열두 달이 씨뿌리기, 늦은 비, 아마 수확, 보리 추수, 밀 추수, 포도 가지치기, 여름 과일 수확의 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이 자연스러운 농경 주기와 출애굽의 구속 역사를 하나로 겹쳐 놓으시고, 레위기 23장에서 이를 '여호와의 절기(모아데 아도나이)'로 선포하셨습니다.

1-B 절기의 구속사적 중심 메시지
레위기 23장의 성경 절기들은 단순한 계절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려고 미리 찍어 두신 '정하신 약속의 시간(모아딤)'이며, 그 모든 그림자의 실체(몸)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C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성취 대조표
구분	구약 본문 및 절기 규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취
봄 4대 절기 (초림 성취)	유월절(1월 14일) · 무교절(15~21일) · 초실절(안식일 이튿날) · 칠칠절(50일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유월절) · 죄 없는 몸과 성결(무교절) · 부활의 첫 열매(초실절) · 성령 강림(오순절)
가을 3대 절기 (재림과 완성)	나팔절(7월 1일) · 대속죄일(7월 10일) · 초막절(7월 15~22일)	깨어 준비케 하는 복음과 마지막 나팔(나팔절) ·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와 민족적 회개(대속죄일) ·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 완성(초막절)
역사 절기 & 안식 체계	부림절(12월 14~15일) · 수전절(9월 25일) / 안식일 · 안식년 · 희년	죽음의 제비를 구원으로 뒤집으시는 섭리(부림절) · 참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수전절) · 그리스도 안의 참 안식과 은혜의 해(희년)

---

2. 나란히 읽는 말씀 (레위기 23:1–4 · 골로새서 2:16–17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레 23: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 레 23:4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가 정한 시기에 성회로 공포할찌니라
- 골 2: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 골 2:17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Lev 23:2 Speak to the children of Israel, and tell them, 'The set feasts of Yahweh, which you shall proclaim to be holy convocations, even these are my set feasts.'
- Lev 23:4 'These are the set feasts of Yahweh, even holy convocations, which you shall proclaim in their appointed season.'
- Col 2:16 Let no one therefore judge you in eating, or in drinking, or with respect to a feast day or a new moon or a Sabbath day,
- Col 2:17 which are a shadow of the things to come; but the body is Christ's.

---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시계바늘을 읽는 가장 선명한 지도가 바로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절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계절에 맞추어 흥겹게 모이는 명절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절기를 부르는 첫 번째 히브리어 낱말은 '모아딤(, 단수 모에드)'입니다. 이 말은 원래 '누군가와 만나기로 미리 약속해 둔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절기는 인간의 달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친히 달력 위에 붉은 인장으로 찍어 두신 '하늘의 약속 시간표'입니다.

이 약속의 시간표는 크게 봄과 가을, 두 계절의 추수 마당을 따라 펼쳐집니다. 먼저 유대 종교력의 첫째 달인 봄(니산월, 태양력 3~4월)에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면서 세 절기가 숨 가쁘게 이어집니다. 열나흘날 해 질 녘에 어린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유월절', 그 이튿날부터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이튿날에 첫 보리 이삭 한 단을 흔들어 바치는 '초실절'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일곱 주간, 오십 일을 세어 밀 추수의 첫 열매를 바치는 '칠칠절(오순절)'로 봄 절기가 마무리됩니다.

놀라운 일은 신약 성경에 와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날에나 우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유월절 양이 잡히던 그 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고전 5:7), 무교절의 누룩 없는 떡처럼 죄 없는 몸으로 무덤에 묻히셨으며, 제사장이 성전에서 초실절 첫 보리 이삭 단을 흔들던 바로 그 안식일 이튿날 새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고전 15:20)!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오십 일째 되던 오순절 아침, 약속하신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 임하심으로(행 2:1) 봄 절기의 네 마디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후 뜨거운 여름의 긴 공백기—곧 오늘날 이방인 추수의 시대를 지나, 일곱째 달(티슈리월, 태양력 9~10월)이 오면 가을의 3대 절기가 시작됩니다. 첫날 숫양 뿔나팔을 길게 불어 잠든 영혼을 깨우는 '나팔절', 열흘째 날 일 년에 단 한 번 지성소 속죄소에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 그리고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 광야의 초막에 거하며 모든 추수를 끝낸 기쁨을 나누는 '초막절(수장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선언한 것처럼, 구약의 모든 절기는 장차 오실 일의 그림자요 그 실체인 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절기를 한 걸음씩 따라 걷는 일은 곧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만져 보는 거룩한 순례입니다.

---

4. 본문을 여는 히브리어·헬라어 원어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TEPBible TAHOT〔WLC 기반〕 / SBLGNT · Strong 번호 병기)

4-1. 모에드 / 모아딤 (/ · H4150)
레위기 23장 2절, 4절 '여호와의 절기(set feasts / appointed times)'. 동사 '야아드(약속하다, 정하여 만나다)'에서 유래한 명사로, 성막을 '회막(오헬 모에드, 만남의 장막)'이라 부를 때 쓰인 바로 그 단어입니다. 공간의 성소가 '회막'이라면, 시간의 성소가 바로 '절기(모아딤)'입니다.

4-2. 미크라 코데쉬 (· H4744 + H6944)
레위기 23장 2절 '성회(holy convocation)'. '부르다, 낭독하다(카라)'에서 온 말로, 백성들이 일상의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임을 입은 거룩한 소집을 뜻합니다.

4-3. 하그 (· H2282)
출애굽기 23장 14–17절 등에서 모든 남자가 일 년에 세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 기쁨으로 춤추며 지키는 '순례 대명절(무교절·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4-4. 스키아 … 토 데 소마 투 크리스투 (σκι … τ δ σμα το Χρι στο · G4639 + G4983)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스키아)는 실체(소마, 몸)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 주는 정확한 윤곽선입니다. 구약 절기의 모든 예식은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던진 거룩한 빛의 그림자입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 〔관찰과 묵상〕
레위기 2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를 '너희의 명절'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두 번이나 거듭하여 '나의 절기(모아다이), 여호와의 절기(모아데 아도나이)'라고 부르시는 대목에 머물러 봅니다. 절기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시려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공간에 회막이 있다면 시간에는 '모아딤(정하신 때)'이 있습니다 (레 23:1–4)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만남의 장소로 '성막(오헬 모에드)'을 주셨고, 흘러가는 시간 속의 만남의 자리로 '절기(모아딤)'를 주셨습니다. 분주한 생존의 수레바퀴를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도록 시간 속에 거룩한 쉼표를 찍어 주신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 절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눈을 맞추시려고 시간 속에 세워 두신 거룩한 만남의 장막입니다.

STEP 02. 봄 절기에 이루어진 초림의 구속과 가을 절기에 담긴 소망 (레 23:5–43)
보리와 밀을 거두는 봄 절기(유월절·무교절·초실절·칠칠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역사 속에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성도는 포도와 올리브를 거두는 가을 절기(나팔절·대속죄일·초막절)가 보여 주는 마지막 추수와 새 하늘과 새 땅의 장막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핵심 메시지: 성경의 절기는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깨어 기다리게 합니다.

STEP 03. 그림자를 지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다 (골 2:16–17)
신약의 성도가 구약의 절기를 깊이 배우는 까닭은 율법주의적인 날짜 준수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림자의 세밀한 결을 알수록 그 그림자를 드리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정교하고 완전한지를 더욱 생생하게 깨닫기 위함입니다.
핵심 메시지: 구약 절기의 모든 규례는 마침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17)"

6-B 이어지는 절기 순례길
성경 절기 총론(모아딤) → 제01절기 안식일(샤바트) → 제02절기 유월절(페사흐) → 제03절기 무교절(마초트)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나의 일주일과 일 년의 시간표 속에는 세상의 바쁜 일정만 가득합니까, 아니면 주님과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해 둔 거룩한 시간(모에드)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2) 유월절에서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 가운데, 오늘 내 영혼에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마디는 어느 절기입니까?

6-D 마무리 기도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정처 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과 만나는 약속의 시간(모아딤)을 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양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장차 영원한 장막으로 저희를 맞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절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기 01 · 주간 절기〕 안식일(샤바트) — 창조의 안식과 출애굽의 해방에서 그리스도의 참 안식으로

〔절기 01 · 주간 절기〕 안식일(샤바트) — 창조의 안식과 출애굽의 해방에서 그리스도의 참 안식으로 (· Shabbat) · 창세기 2:1–3 · 출애굽기 20:8–11 · 마태복음 11:28–30

1. 절기 개관 · 구속사의 시간표와 고고학·농경 배경

1-A 절기의 시기 및 농경·역사적 자리 (매주 일곱째 날 (금요일 해 질 녘 ~ 토요일 해 질 녘) · 신약 안식의 성취)
고대 근동 바벨론의 달력에도 특정 날짜의 금기일(샤파투)이 있었으나, 이는 신들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왕과 제사장이 활동을 조심하던 두려움의 날이었습니다. 반면 성경의 안식일(샤바트)은 고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혁명적인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왕과 귀족뿐 아니라 집안의 남종과 여종, 성문 안에 거하는 이방 나그네, 심지어 밭을 갈던 소와 나귀까지도 똑같이 멍에를 벗고 숨을 돌리게 한 인류 최초의 보편적 안식과 인권의 규례였기 때문입니다.

1-B 절기의 구속사적 중심 메시지
레위기 23장이 모든 연간 절기에 앞서 가장 먼저 선포하는 '안식일(샤바트)'은 내가 일손을 놓아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신다는 창조 신앙의 고백이자 벽돌 굽던 노예가 자유인으로 숨을 돌리는 구속의 선언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1-C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성취 대조표
구분	구약 본문 및 절기 규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취
제1기둥 · 창조의 안식	창세기 2:1–3 · 출애굽기 20:8–11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며, 세상이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감을 고백함
제2기둥 · 출애굽 해방의 안식	신명기 5:12–15	애굽에서 쉼 없이 벽돌을 굽던 종살이에서 건져 주신 구원을 기억하며, 종과 나그네와 가축에게도 쉼을 허락함
제3기둥 · 그리스도 안의 참 안식	마태복음 11:28–30 · 히브리서 4:9–10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율법적 정죄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고 누리는 구속의 영원한 안식

---

2. 나란히 읽는 말씀 (창세기 2:1–3 · 출애굽기 20:8–11 · 마태복음 11:28–30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레 23:3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 신 5: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 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Lev 23:3 'Six days shall work be done, but on the seventh day is a Sabbath of solemn rest, a holy convocation; you shall do no manner of work. It is a Sabbath to Yahweh in all your dwellings.'
- Deut 5:15 You shall remember that you were a servant in the land of Egypt, and Yahweh your God brought you out of there by a mighty hand and by an outstretched arm: therefore Yahweh your God commanded you to keep the Sabbath day.
- Matt 11:28 'Come to me, all you who labor and are heavily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일 년의 절기들을 말씀하실 때, 유월절보다도 먼저 첫머리에 세우시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일곱째 날, '안식일(샤바트)'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거룩하다(카다쉬)'는 이름을 얻은 것은 거대한 산도, 화려한 성전도 아닌 바로 시간, 곧 '일곱째 날'이었습니다(창 2:3).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 때, 그 첫 안식일은 인간에게는 창조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인간은 땀 흘려 일해서 자격을 얻은 뒤에 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차려 놓으신 안식의 기쁨을 먼저 누리는 자리에서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십계명은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들려줍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창조'를 가리키며, 내가 하루 일손을 멈추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까닭은 이 우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일깨웁니다. 반면 신명기 5장 15절은 '출애굽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노예에게는 휴일이 없었습니다. 쉬지 못하고 끝없이 벽돌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삶,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에 쟁기를 내려놓고 멈추어 서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 내신 자유인이다!'라고 온몸으로 선포하는 해방의 행위였습니다.

유대 가정에서는 금요일 해가 질 무렵 두 개의 등잔에 불을 밝힙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의 '안식일을 기억하라(자코르)'와 신명기 5장 12절의 '안식일을 지켜라(샤모르)'는 두 말씀을 기리는 두 줄기 빛입니다. 식탁 위에는 광야에서 금요일마다 두 배로 내려 주셨던 만나(출 16:22)를 기억하며 땋은 떡 두 덩이(할라)를 보자기 아래 덮어 둡니다. 내가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신뢰의 식탁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바리새인들은 이 은혜의 날에 서른아홉 가지 금지 조항의 울타리를 쳐서 사람들을 얽어매는 무거운 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 '안식일의 주인(마 12:8)'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풀어 주시며 외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테텔레스타이)' 하시고 무덤의 안식을 지나 부활의 첫날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품에 안기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입니다.

---

4. 본문을 여는 히브리어·헬라어 원어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TEPBible TAHOT〔WLC 기반〕 / SBLGNT · Strong 번호 병기)

4-1. 샤바트 샤바톤 (· H7676 + H7677)
레위기 23장 3절 '쉴 안식일(Sabbath of solemn rest)'. 동사 '샤바트(멈추다, 그치다, 쉬다)'에서 나온 명사를 두 번 겹친 최상급 표현으로, 자기 힘을 의지하던 모든 분주한 노동을 완전히 내려놓는 깊은 안식을 뜻합니다.

4-2. 네페쉬 (· H5315 — 숨을 돌리다)
출애굽기 23장 12절과 31장 17절에서 안식일에 '숨을 돌리다(야나파쉬)'라는 동사는 생명의 숨결을 뜻하는 '네페쉬'에서 왔습니다. 일에 쫓겨 잃어버렸던 영혼의 호흡을 다시 되찾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4-3. 아나파우소 (ναπαυω · G0373)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I will give you rest)'.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긴 여정과 무거운 짐으로 지친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그리스도의 구속적 안식입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관찰과 묵상〕
출애굽기 16장에서 광야의 이스라엘이 안식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고 장막 안에 머무는 장면에 마음을 두어 봅니다. '오늘 내가 나가지 않으면 굶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여 멈추어 서는 믿음의 훈련이 바로 안식일임을 묵상해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멈춤은 믿음입니다 — 세상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갑니다 (레 23:3)
끊임없이 일하고 경쟁해야만 살아남을 것 같은 세상의 불안 앞에서, 성도가 거룩한 날에 일손을 내려놓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장 용기 있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핵심 메시지: 참된 안식은 내가 멈추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시작됩니다.

STEP 02. 나만 쉬는 날이 아니라 내 곁의 약한 이도 숨을 돌리게 하는 날 (신 5:14–15)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의 중심에 남종과 여종과 나그네와 가축을 두셨습니다. 내가 누리는 구원의 해방은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멍에를 벗겨 주고 함께 숨을 돌리게 할 때 온전해집니다.
핵심 메시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이웃을 쉼 없는 수고로 내몰지 않습니다.

STEP 03.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품에서 누리는 영혼의 쉼 (마 11:28–30)
몸이 아무리 쉬어도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혼은 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함께 멜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참된 쉼(아나파우시스)을 얻습니다.
핵심 메시지: 안식은 날짜의 규칙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6-B 이어지는 절기 순례길
제01절기 안식일(샤바트) → 제02절기 유월절(페사흐 · 구속의 시작) → 제11절기 안식년과 희년(요벨 · 안식의 완성)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나는 거룩한 안식의 날에도 스마트폰과 일거리와 내일의 염려를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여전히 애굽의 벽돌 공장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 오늘 내가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어야 할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6-D 마무리 기도
창조와 구속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려 애쓰며 숨 가쁘게 달려온 저희의 교만과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영혼의 호흡을 되찾게 하시고, 저희가 누리는 이 은혜의 쉼이 지친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그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기 02 · 봄 제1절기〕 유월절(페사흐) — 문설주의 어린양 피와 구속의 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절기 02 · 봄 제1절기〕 유월절(페사흐) — 문설주의 어린양 피와 구속의 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 Pesach) · 출애굽기 12:1–14 · 레위기 23:5 · 고린도전서 5:7

1. 절기 개관 · 구속사의 시간표와 고고학·농경 배경

1-A 절기의 시기 및 농경·역사적 자리 (유대 종교력 제1월(아빕월·니산월) 14일 해 질 녘 (태양력 3~4월 보름))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 있는 이 달(아빕월, 후대의 니산월)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노예로 살던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세월을 모두 지우시고,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은 바로 그날을 인생과 역사의 새로운 1월 1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제2성전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후 세 시(제9시)부터 다섯 시 사이에 수십만 마리의 유월절 양이 희생 제물로 드려졌으며,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그 유월절 양들이 잡히던 제9시(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1-B 절기의 구속사적 중심 메시지
죽음의 심판이 온 애굽을 덮치던 밤에 오직 문설주에 발린 흠 없는 어린양의 피만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표적이었듯,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 내십니다.

1-C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성취 대조표
구분	구약 본문 및 절기 규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취
제1마디 · 흠 없는 어린양의 선택과 피	출애굽기 12:3–7	1월 10일에 흠 없는 일 년 된 수컷 어린양을 택하여 나흘간 살핀 뒤 14일 해 질 때에 잡아 우슬초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름
제2마디 ·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12–13	집 안 사람의 도덕적 공로가 아니라 오직 문설주의 '피'를 보시고 심판이 그 집을 뛰어넘어(파사흐) 보호하심
제3마디 ·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요한복음 1:29 · 고린도전서 5:7 · 요한복음 19:36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잔

---

2. 나란히 읽는 말씀 (출애굽기 12:1–14 · 레위기 23:5 · 고린도전서 5:7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출 12:13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찌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 레 23:5 정월 십사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 고전 5: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Exod 12:13 The blood shall be to you for a token on the houses where you are: and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and there shall no plague be on you to destroy you, when I strike the land of Egypt.
- Lev 23:5 In the first month, on the fourteenth day of the month in the evening, is Yahweh's Passover.
- 1Cor 5:7 Purge out the old yeast, that you may be a new lump, even as you are unleavened. For indeed Christ, our Passover, has been sacrificed in our place.

---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달력은 출애굽기 12장의 그 떨리는 밤, '유월절(페사흐)'에서 시작됩니다. 사백삼십 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건져 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마다 일 년 된 흠 없는 수컷 어린양을 정월 열흘날 미리 골라 두었다가, 나흘 뒤인 열나흘날 해 질 때(두 저녁 사이)에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작고 흔한 풀인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대접에 담긴 어린양의 피에 적셔서 집 문설주 좌우와 위쪽 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읽어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인격을 볼 때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착한 행실이나 눈물의 분량을 볼 때에'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우르이티 에트 하담 우파사흐티 알레켐)!' 그 집 안에 있는 장자가 어제까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든, 얼마나 연약했든 상관없이, 그가 어린양의 피가 발린 문 안쪽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죽음의 심판이 그 집을 결코 건드리지 못하고 뛰어넘어 갔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파사흐()'는 참으로 놀라운 두 가지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 해치지 않고 '건너뛰다, 지나가다'라는 뜻이요, 다른 하나는 이사야 31장 5절('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에 쓰인 것처럼 어미 새가 날개를 활짝 펴서 둥지 위를 덮어 '호위하다, 감싸 막아서다'라는 뜻입니다! 즉 유월절 밤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문설주의 피 위에 날개를 펴고 서셔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 주신 것입니다.

천오백 년이 흐른 뒤, 세례 요한은 요단강 가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 예수님께서는 정월 열흘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나흘 동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흠 없는 분이심을 입증하신 뒤, 정확히 유월절 양이 잡히는 열나흘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하신 말씀(출 12:46) 그대로 주님의 뼈도 하나도 꺾이지 않았고(요 19:36), 그 흘리신 보혈은 오늘도 믿음으로 그 문 안에 거하는 모든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내는 영원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

4. 본문을 여는 히브리어·헬라어 원어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TEPBible TAHOT〔WLC 기반〕 / SBLGNT · Strong 번호 병기)

4-1. 페사흐 / 파사흐 (/ · H6453 / H6452)
출애굽기 12장 13절 '유월절 / 넘어가리니'. 심판이 뛰어넘어 지나가다(pass over)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자기 백성의 집 문 앞을 덮어 호위하시다(hover over to protect, 사 31:5)라는 이중적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4-2. 벤 하아르바임 (· H0996 + H6153)
출애굽기 12장 6절, 레위기 23장 5절 '해 질 때에 / 저녁(between the two evenings)'. 성전 시대에 오후 3시(제9시)부터 해가 지는 6시 사이를 가리키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시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4-3. 토 파스카 헤몬 에튀데 크리스토스 (τ π σ χ α μ ν τ θ η Χ ρ ι σ τ · G3957 + G2380)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구약의 모든 유월절 어린양이 가리키던 단 한 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관찰과 묵상〕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어린양의 피가 집 안쪽 벽이 아니라 집 바깥쪽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져 있다는 사실에 머물러 봅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피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었으나,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를 믿고 그 피 아래 거할 때 완전한 구원을 누렸음을 묵상해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죄의 값을 대신 치른 흠 없는 어린양의 피 (출 12:3–7)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의 장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일 년 된 어린양이 대신 목숨을 내어놓고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친히 흠 없는 어린양이 되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핵심 메시지: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거저 받은 은혜이나, 하나님께는 아들의 피를 지불하신 가장 값비싼

사랑이었습니다.

STEP 02.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출 12:12–13)
구원의 근거는 내 감정의 높낮이나 어제의 도덕적 성적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심령의 문설주에 발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모든 정죄와 심판을 영원히 넘어가십니다(롬 8:1).
핵심 메시지: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내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STEP 03. 쓴 나물과 구운 고기를 먹고 새 인생의 첫 달을 출발하다 (출 12:8–11)
유월절은 피로 구원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불에 구운 어린양의 살을 먹어 행진할 힘을 얻고 허리에 띠를 띤 채 애굽의 옛 삶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날입니다.
핵심 메시지: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을 내 인생의 새로운 첫 달로 삼아 거룩한 순례의 길을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13)"

6-B 이어지는 절기 순례길
제02절기 유월절(페사흐) → 제03절기 무교절(마초트 · 거룩한 동행) → 제04절기 초실절(비쿠림 · 부활의 첫 열매)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나는 내 약함과 허물이 보일 때마다 정죄감에 무너져 내립니까, 아니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하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 아래로 피합니까?
2) 유월절 밤에 허리에 띠를 띠고 애굽을 떠나듯, 구원받은 내가 이제 미련 없이 떠나보내야 할 옛 생활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6-D 마무리 기도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이 되시는 주 예수님, 죄와 사망의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흠 없는 보혈을 흘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알량한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피를 보시고 모든 정죄를 넘어가시는 아버지의 약속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기 03 · 봄 제2절기〕 무교절(마초트) — 누룩 없는 고난의 떡과 거룩한 출애굽의 행진

〔절기 03 · 봄 제2절기〕 무교절(마초트) — 누룩 없는 고난의 떡과 거룩한 출애굽의 행진 (· Chag HaMatzot) · 출애굽기 12:15–20 · 레위기 23:6–8 · 고린도전서 5:6–8

1. 절기 개관 · 구속사의 시간표와 고고학·농경 배경

1-A 절기의 시기 및 농경·역사적 자리 (유대 종교력 제1월(니산월) 15일 ~ 21일 (유월절 이튿날부터 7일간))
고대 근동에서 빵을 구울 때에는 새로 반죽한 밀가루에 전날 남겨 둔 시큼한 발효 반죽(사오르, 누룩)을 조금 떼어 넣어 부풀렸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던 밤 이스라엘 백성은 반죽이 부풀어 오를 시간조차 없이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고(출 12:34), 광야 첫 숙영지 숙곳에서 그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납작한 무교병(마초트)을 구워 먹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날 밤 등불을 켜 들고 집 안 구석구석의 작은 빵 부스러기(하메츠)까지 찾아내어 불사르는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1-B 절기의 구속사적 중심 메시지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그 이튿날부터 이레 동안 집 안의 모든 묵은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떡(마차)을 먹으며 걸었듯,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는 옛 삶의 부패와 외식의 누룩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1-C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성취 대조표
구분	구약 본문 및 절기 규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취
제1마디 · 급히 나온 구원과 고난의 떡	출애굽기 12:34, 39 · 신명기 16:3	애굽의 반죽이 발효되기도 전에 급히 건져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평생 기억하는 '고난의 떡(레헴 오니)'
제2마디 · 이레 동안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출애굽기 12:15, 19 · 레위기 23:6–8	단 하루의 유월절 구원이 완전수 7일(전 생애) 동안 옛 죄악의 누룩을 멀리하는 성결의 행진으로 이어짐
제3마디 · 묵은 누룩을 버리고 진실함의 떡으로	고린도전서 5:6–8 · 베드로전서 2:22	죄와 부패(누룩)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본받아, 괴악함과 악독의 누룩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지키는 성도의 삶

---

2. 나란히 읽는 말씀 (출애굽기 12:15–20 · 레위기 23:6–8 · 고린도전서 5:6–8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레 23:6 이 달 십오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레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 신 16:3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칠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 고전 5:8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Lev 23:6 On the fifteenth day of the same month is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to Yahweh. Seven days you shall eat unleavened bread.
- Deut 16:3 You shall eat no leavened bread with it; seven days shall you eat unleavened bread with it, even the bread of affliction; (for you came forth out of the land of Egypt in haste:) that you may remember the day when you came forth out of the land of Egypt all the days of your life.
- 1Cor 5:8 Therefore let us keep the feast, not with old yeast, neither with the yeast of malice and wickedness, but with the unleavened bread of sincerity and truth.

---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성경의 절기 달력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이에 단 하루의 틈도 없이 맞붙어 있습니다. 정월 열나흗날 밤이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는 '유월절'이라면, 바로 그 이튿날인 보름날부터 스무하룻날까지 이레 동안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하그 하마초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단 하룻밤의 유월절 바로 뒤에 이레 동안의 무교절을 붙여 놓으셨을까요? 구원의 신학이 이 두 절기의 순서 속에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어린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애굽에서 건짐을 받는 단번의 사건, 곧 '칭의와 거듭남'이라면, 무교절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애굽의 옛 습관을 끊어 내고 거룩하게 걸어가는 일생의 여정, 곧 '성화'의 삶입니다!

무교절에 먹는 누룩 없는 떡, 히브리어로 '마차(, 복수 마초트)'는 부풀어 오르지 않은 납작하고 투박한 떡입니다. 고대에는 빵을 만들 때 전날 반죽에서 떼어 둔 발효된 반죽 조각(누룩)을 새 반죽에 섞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가져온 그 시큼한 옛 누룩을 새날의 양식에 섞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온 덩어리를 부풀리고 부패하게 만드는 죄악과 위선과 교만을 상징합니다(마 16:6, 고전 5:6). 작은 죄 하나쯤 괜찮겠지 하고 품어 둔 누룩이 결국 영혼 전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명기 16장 3절은 이 무교병을 일컬어 '고난의 떡(레헴 오니)'이라 부르며,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맛있는 진수성찬이 아니라 누룩도 넣지 않은 담백하고 딱딱한 무교병을 씹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본래 어떤 비참한 종살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급하신 손길로 건짐을 받았는지를 겸손히 되새겼습니다.

더 나아가 이 무교병은 죄의 누룩이 조금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을 가리킵니다.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에 무덤에 묻히셨으나, 죄가 없으셨기에 시편 16장 10절의 예언대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습니다. 화덕에 구워질 때 반죽이 부풀지 않도록 촘촘히 구멍이 뚫리고 불길에 줄무늬 자국이 남은 무교병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신(사 53:5)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오늘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 줍니다.

---

4. 본문을 여는 히브리어·헬라어 원어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TEPBible TAHOT〔WLC 기반〕 / SBLGNT · Strong 번호 병기)

4-1. 마초트 (· H4682)
레위기 23장 6절 '무교병(unleavened bread)'. 발효시키는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하고 담백한 떡으로, 부패하지 않는 정결함과 거짓 없는 진실함을 상징합니다.

4-2. 레헴 오니 (· H3899 + H6040)
신명기 16장 3절 '고난의 떡(bread of affliction / humility)'. 애굽 종살이의 고난을 잊지 않게 하는 떡인 동시에, 교만하게 부풀어 오르지 않는 겸손의 떡을 뜻합니다.

4-3. 아쥬모이 일리크리네이아스 카이 알레데이아스 (ζ μ ο ι ε λ ι κ ρ ι ν ε α κ α λ η θ ε α · G0106 + G1505 + G0225)
고린도전서 5장 8절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헬라어 '일리크리네이아(순전함)'는 햇빛(헬리오스) 아래 비추어 보아도 흠이나 불순물이 없는 투명한 정직함을 뜻합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관찰과 묵상〕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하신 말씀을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와 나란히 놓고 머물러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룩 없는 새 사람'이 되었기에, 그 신분에 걸맞게 삶 속의 묵은 누룩을 기꺼이 청소해 내는 성화의 원리를 묵상해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유월절의 구원은 반드시 무교절의 거룩한 걸음으로 이어집니다 (레 23:5–6)
어린양의 피를 바르고도 애굽 땅에 그대로 주저앉아 옛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출애굽이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은혜는 그 즉시 옛 죄악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주일, 곧 전 생애의 무교절로 이어져야 합니다.
핵심 메시지: 유월절 없는 무교절은 율법주의요, 무교절 없는 유월절은 거짓된 방종입니다.

STEP 02. 평생에 내가 건짐 받은 날을 기억하는 겸손의 식탁 (신 16:3)
무교병은 화려하게 부풀어 오른 세상의 빵과 달리 납작하고 소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떡을 먹게 하신 것은, 평안해질 때에도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 첫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사랑입니다.
핵심 메시지: 성도의 힘은 화려하게 자신을 부풀리는 데 있지 않고, 구원의 첫 은혜를 기억하는 겸손함에 있습니다.

STEP 03. 등불을 켜 들고 내 마음의 작은 누룩을 청소하는 성결 (고전 5:6–8)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 은밀하게 방치한 작은 시기나 거짓이나 음란이 영혼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성령의 등불을 켜 들고 내 마음 구석구석의 묵은 누룩을 쓸어내어 순전함과 진실함의 새 덩어리로 서야 합니다.
핵심 메시지: 참된 명절은 겉모습을 꾸미는 날이 아니라 마음의 묵은 누룩을 비워 내고 진실함으로 채우는 날입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8)"

6-B 이어지는 절기 순례길
제03절기 무교절(마초트) → 제04절기 초실절(비쿠림 · 부활의 첫 열매) → 제05절기 칠칠절·오순절(샤부오트)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 구석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남겨 둔 옛 생활의 작은 누룩(미움, 교만, 거짓, 탐심)은 무엇입니까?
2) 내가 처음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건짐 받았던 그날의 감격과 겸손함을 오늘 다시 회복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나의 출애굽 순간은 언제입니까?

6-D 마무리 기도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저희를 건져 주셨사오니, 이제 애굽의 묵은 누룩을 품은 채 옛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 구석구석을 비추사 은밀한 교만과 악독과 위선의 누룩을 깨끗이 제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기 04 · 봄 제3절기〕 초실절(비쿠림) — 안식일 이튿날 흔들어 바친 첫 보리 이삭과 부활의 첫 열매

〔절기 04 · 봄 제3절기〕 초실절(비쿠림) — 안식일 이튿날 흔들어 바친 첫 보리 이삭과 부활의 첫 열매
(· Bikurim / Reshit) · 레위기 23:9–14 · 고린도전서 15:20–23

1. 절기 개관 · 구속사의 시간표와 고고학·농경 배경

1-A 절기의 시기 및 농경·역사적 자리 (유대 종교력 제1월(니산월)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이튿날 (부활의 새벽))
이스라엘의 봄 추수는 유월절 무렵 가장 먼저 익는 '보리(세오라)' 추수로 시작됩니다. 미쉬나(메나호트 10장)에 기록된 제2성전기 초실절 예식에 따르면,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밭에서 미리 표시해 둔 첫 보리 단을 베어 성전으로 가져온 뒤, 제사장이 안식일 이튿날 아침 그 보리 단(오메르)을 동서남북과 하늘과 땅으로 흔들어(요제, Wave Offering)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누구도 햇곡식이나 볶은 이삭을 입에 댈 수 없었으며(레 23:14), 첫 단이 열납되는 순간 온 땅의 추수가 거룩하게 허락되었습니다.

1-B 절기의 구속사적 중심 메시지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이튿날'에 들판에서 가장 먼저 익은 첫 보리 이삭 한 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침으로 온 밭의 추수가 복되게 보장되었듯, 정확히 그 안식일 이튿날 새벽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확증하시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1-C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성취 대조표
구분	구약 본문 및 절기 규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취
제1마디 · 안식일 이튿날의 첫 이삭 단	레위기 23:10–11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추수를 할 때, 첫 보리 이삭 한 단(오메르)을 제사장에게 가져가 안식일 이튿날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침
제2마디 · 첫 열매가 온 밭의 추수를 대표함	레위기 23:12–14 · 로마서 11:16	첫 열매(레쉬트)를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뒤따라올 온 들판의 수확 전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고 복을 누림
제3마디 ·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20–23 · 마태복음 28:1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되신 예수님께서 정확히 '안식일 이튿날(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심

---

2. 나란히 읽는 말씀 (레위기 23:9–14 · 고린도전서 15:20–23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레 23:10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 레 23:11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Lev 23:10 Speak to the children of Israel, and tell them, 'When you have come into the land which I give to you, and shall reap its harvest, then you shall bring the sheaf of the first fruits of your harvest to the priest:'
- Lev 23:11 'and he shall wave the sheaf before Yahweh, to be accepted for you. On the next day after the Sabbath the priest shall wave it.'
- 1Cor 15:20 But now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He became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are asleep.

---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봄의 세 번째 절기 '초실절'을 읽을 때면, 성경 말씀의 한 치 오차 없는 정교함에 온몸에 전율이 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첫 보리 이삭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하는 정확한 날짜를 이렇게 못 박아 두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 날짜를 헤아려 보십시오. 왜 하필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지는 그 주간의 '안식일 이튿날'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정월 14일 유월절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의 안식일 동안 돌무덤 속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식일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주일) 이른 새벽!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그해의 첫 보리 이삭 한 단을 높이 들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던 바로 그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돌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그토록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에서 '첫 열매(레쉬트, 헬라어 아파르케)'라는 말은 단순히 '일등으로 열린 열매'라는 뜻이 아닙니다. 첫 보리 이삭 한 단이 황금빛으로 익어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것은, 이제 머지않아 온 들판의 모든 보리밭도 똑같은 모습으로 익어 추수될 것임을 보증하는 살아 있는 샘플이자 법적 확증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홀로 부활하시고 끝났다면 우리는 그분을 '유일한 열매'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을 '첫 열매(아파르케)'라고 부릅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반드시 뒤따라오는 둘째, 셋째, 수천수만의 알곡 열매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약속합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초실절의 첫 보리 단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주님께 붙어 있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

4. 본문을 여는 히브리어·헬라어 원어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TEPBible TAHOT〔WLC 기반〕 / SBLGNT · Strong 번호 병기)

4-1. 레쉬트 크치르켐 / 오메르 (/ · H7225 + H7105 / H6016)
레위기 23장 10절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sheaf of the first fruits)'. '레쉬트'는 시간적으로 가장 앞선 첫머리이자 전체를 대표하는 으뜸을 뜻하며, '오메르'는 밭에서 베어 묶은 곡식 한 단(약 2.2리터 분량)을 가리킵니다.

4-2. 미모호라트 하샤바트 (· H4283 + H7676)
레위기 23장 11절 '안식일 이튿날에(on the next day after the Sabbath)'. 복음서가 일제히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 아침, 곧 '안식 후 첫날 새벽(마 28:1, 막 16:2, 눅 24:1, 요 20:1)'을 천오백 년 전에 미리 예고한 구속사적 시간표입니다.

4-3. 아파르케 톤 케코이메메논 (π α ρ χ τ ν κ ε κ ο ι μ η μ ν ω ν · G0536 + G2837)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first fruits of those who are asleep)'. 헬라어 구약(70인역)이 레위기 23장 10절의 '첫 이삭(레쉬트)'을 번역할 때 사용한 바로 그 단어 '아파르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수표임을 뜻합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관찰과 묵상〕
레위기 23장 14절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찌니' 하신 말씀에 머물러 봅니다. 내 손에 들어온 첫 수확을 내가 먼저 삼키지 않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별하여 올려 드리는 '첫 열매의 신앙'을 묵상해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죽음의 땅을 뚫고 솟아오른 안식일 이튿날의 첫 이삭 (레 23:10–11)
차갑고 어두운 겨울 땅속에 묻혔던 씨앗이 봄비와 햇살을 맞아 첫 푸른 보리 이삭으로 솟아오르듯,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이튿날 새벽 영광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핵심 메시지: 무덤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밭이었습니다.

STEP 02.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십니다 (고전 15:20–23)
첫 보리 단이 하나님 앞에 열납될 때 온 들판의 보리밭이 거룩하게 인정받듯,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임을 확증하는 영원한

보증입니다.
핵심 메시지: 성도가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의 문을 부수고 먼저 건너가셨기 때문입니다.

STEP 03. 내 삶의 첫 시간, 첫 열매를 주님께 흔들어 드리다 (레 23:14 · 잠 3:9)
이스라엘은 첫 이삭 단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결코 햇곡식을 먼저 먹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한 주간의 첫날, 내 수고의 첫 열매를 주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나머지 모든 들판도 복되게 책임져 주십니다.
핵심 메시지: 가장 귀한 첫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이 온 인생을 거룩한 추수밭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20)"

6-B 이어지는 절기 순례길
제04절기 초실절(비쿠림) → 50일 오메르 계수 → 제05절기 칠칠절·오순절(샤부오트 ·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는 나의 삶 속에는, 죽음과 좌절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산 소망'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2) 오늘 나의 하루와 한 주간, 그리고 내게 주신 물질과 재능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별하여 올려 드려야 할 '첫 이삭 한 단'은 무엇입니까?

6-D 마무리 기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님, 무교절 안식일 이튿날 새벽에 빈 무덤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니 찬양합니다. 첫 열매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저희도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열매로 일어설 줄 믿사오니, 이 땅을 사는 동안 죽음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저희 삶의 첫 시간과 첫 마음을 주님께 기쁨으로 흔들어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기 05 · 봄 제4절기〕 칠칠절·맥추절·오순절(샤부오트) — 시내산 언약에서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과 두 덩이 유교병까지

〔절기 05 · 봄 제4절기〕 칠칠절·맥추절·오순절(샤부오트) — 시내산 언약에서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과 두 덩이 유교병까지 (· Shavuot / Pentecost) · 레위기 23:15–22 · 사도행전 2:1–4

1. 절기 개관 · 구속사의 시간표와 고고학·농경 배경

1-A 절기의 시기 및 농경·역사적 자리 (초실절로부터 7주(49일)를 세어 50일째 되는 날 (유대력 제3월 시반월 6일경))
성경에서 이 절기는 네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초실절부터 일곱 안식일(7주, 샤부오트)을 세어 지킨다 하여 칠칠절(출 34:22, 신 16:10), 봄 농사의 본류인 밀 추수를 거둔다 하여 맥추절(출 23:16), 새 곡식으로 첫 소산의 떡을 드린다 하여 초실절(민 28:26), 그리고 헬라어로 '오십 번째 날'을 뜻하는 오순절(행 2:1, 펜테코스테)입니다. 유대 전승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정월 14일 유월절에 애굽을 떠나 삼월 초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토라(율법)를 받은 날을 바로 이 칠칠절(샤부오트)로 기념하며, 이날 회당에서 이방 여인 룻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함께 지낸 『룻기』를 낭독합니다.

1-B 절기의 구속사적 중심 메시지
초실절 첫 보리 단을 흔든 날부터 정확히 오십 일째 되는 칠칠절(오순절)에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두 덩이 떡'을 여호와께 흔들어 바쳤듯, 예수님의 부활 후 오십 일째 되던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돌판이 아닌 마음 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새 교회'로 탄생했습니다.

1-C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성취 대조표
구분	구약 본문 및 절기 규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취
제1마디 · 오십 일을 세어 드리는 새 소제	레위기 23:15–16	초실절 안식일 이튿날부터 일곱 안식일(49일)을 세어 오십 일째 되는 날에 햇밀로 새 소제를 드림
제2마디 · 누룩을 넣어 구운 두 덩이의 떡	레위기 23:17–20	일반 제단에는 금지된 '누룩'을 넣어 구운 고운 밀가루 떡 두 덩이를 첫 요제로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침
제3마디 · 밭모퉁이의 자비와 오순절 성령 강림	레위기 23:22 · 사도행전 2:1–4 · 에베소서 2:14–16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밭모퉁이를 남겨 두는 사랑,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두 덩이 떡)이 한 몸 된 교회로 세워짐

---

2. 나란히 읽는 말씀 (레위기 23:15–22 · 사도행전 2:1–4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레 23:15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 레 23:16 제 칠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오십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 레 23:17 너희 처소에서 에바 십분 이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찌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 행 2: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Lev 23:15 'You shall count from the next day after the Sabbath, from the day that you brought the sheaf of the wave offering; seven Sabbaths shall be completed:'
- Lev 23:16 'even to the next day after the seventh Sabbath you shall count fifty days; and you shall offer a new meal offering to Yahweh.'
- Lev 23:17 'You shall bring out of your habitations two loaves of two tenths of an ephah. They shall be of fine flour. They shall be baked with yeast, for first fruits to Yahweh.'
- Acts 2:1 Now when the day of Pentecost had come, they were all with one accord in one place.

---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초실절에 첫 보리 이삭 단을 흔든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저녁 하루씩 날수를 세어 나갑니다(스피라트 하오메르). 일곱 주간, 마흔아홉 날을 다 채우고 맞이하는 오십 일째 아침! 보리 추수로 시작된 봄의 들판이 마침내 가장 풍성한 밀 추수로 무르익는 절기, 바로 '칠칠절(샤부오트)'이자 신약의 이름으로는 '오순절(펜테코스테)'입니다.

이 칠칠절 규례에는 레위기 전체를 통틀어 매우 특별한 장면이 두 가지 등장합니다. 첫째는 레위기 23장 17절의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두 개'입니다. 원래 레위기 2장 11절에 따르면 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소제물에는 절대 누룩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실절과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오십 일째 되는 칠칠절에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새 소제'에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떡 두 덩이를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 비밀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환하게 풀립니다! 부활(초실절)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고, 정확히 부활 후 오십 일째 되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행 2:1)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불이 임하여 신약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은 본래 여전히 연약함과 허물의 누룩을 가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뜨거운 불로 구워져 발효가 멈추고, 속죄제와 화목제의 어린양 공로와 함께 드려질 때(레 23:18–19),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덩이의 떡'을 기쁘게 받으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교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엡 2:14).

두 번째 특별한 장면은 칠칠절 규례의 맨 끝인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축제 이야기를 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고 명하십니다. 내 창고에 햇밀이 가득 차오르는 추수의 절정에, 빈손으로 서 있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칠칠절마다 베들레헴 밀밭에서 이방 여인 룻에게 밭모퉁이와 한 줌의 이삭을 넉넉히 남겨 주었던 보아스의 이야기, 『룻기』를 펼치고 읽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교회가 곧 자기 소유를 나누어 가난한 이가 없게 했던 사랑의 공동체(행 2:44–45)였음이 이미 레위기 23장에 예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

4. 본문을 여는 히브리어·헬라어 원어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TEPBible TAHOT〔WLC 기반〕 / SBLGNT · Strong 번호 병기)

4-1. 샤부오트 / 펜테코스테 (· H7620 / π ε ν τ η κ ο σ τ · G4005)
레위기 23장 15–16절, 사도행전 2장 1절. 히브리어 '샤부오트'는 일곱 주간(Weeks)을 뜻하고, 헬라어 '펜테코스테'는 초실절로부터 오십 번째 날(Fiftieth day)을 뜻합니다.

4-2. 레헴 트누파 슈타임 … 하메츠 테아페이나 (… · H3899 + H8573 + H2557)
레위기 23장 17절 '흔드는 떡 두 개…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 죄 없으신 그리스도(무교병)와 달리, 본래 허물 많던 죄인들이 성령의 은혜로 구속받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지는 신약 성도 공동체(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를 예표합니다.

4-3. 페아트 사드카 (· H6285 + H7704)
레위기 23장 22절 '네 밭모퉁이(the corner of your field)'. 추수의 기쁨을 독차지하지 않고 가난한 자와 이방 나그네를 위해 밭의 가장자리를 남겨 두는 거룩한 여백입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 〔관찰과 묵상〕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강림하신 불 가운데서 돌판에 율법이 새겨지던 첫 칠칠절과, 사도행전 2장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불혀 가운데서 성도들의 마음 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던(렘 31:33) 신약의 오순절을 나란히 놓고 머물러 봅니다. 두려움으로 떨던 시내산 백성이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는 오순절 교회로 변화된 은혜를 묵상해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부활에서 오순절까지 — 약속을 기다리며 세어 나간 오십 일 (레 23:15–16 · 행 1:4)

초실절의 첫 보리 단과 칠칠절의 밀 추수 사이에는 하루하루 사모하며 날수를 세어 가는 오십 일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도로 하루하루를 세어 가는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STEP 02. 연약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빚으시는 성령의 불 (레 23:17–20 · 행 2:1–4)
누룩 섞인 반죽도 화덕의 불을 통과하고 어린양의 희생 제물과 함께 드려질 때 여호와 앞에 연락되는 거룩한 요제의 떡이 되었습니다. 허물 많던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 됩니다.
핵심 메시지: 오순절 성령은 돌판의 글자로는 바꿀 수 없었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STEP 03. 추수의 한복판에 남겨 두는 '밭모퉁이'의 사랑 (레 23:22 · 행 2:44–45)
칠칠절의 진정한 완성은 내 창고를 가득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내 밭의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이웃과 나그네를 위해 남겨 두는 자비의 실천에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성령 충만한 오순절 신앙은 언제나 내 삶의 밭모퉁이를 열어 이웃을 살리는 나눔으로 증명됩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3:22)"

6-B 이어지는 절기 순례길
제05절기 칠칠절·오순절(샤부오트) → 여름 이방인 추수의 시대 → 제06절기 가을 제1절기 나팔절(욤 테루아)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나의 신앙은 내 힘으로 계명을 지켜 보려다 지치는 시내산 돌판 아래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 판에 사랑을 새기시는 오순절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의지하고 있습니까?
2)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추수밭에서, 외롭고 가난한 이웃이 부끄럽지 않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내가 남겨 두어야 할 '밭모퉁이'는 어디입니까?

6-D 마무리 기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저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순종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묶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막힌 담을 허무는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의 밭모퉁이를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남겨 두는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기 06 · 가을 제1절기〕 나팔절(욤 테루아) — 일곱째 달 첫날 울려 퍼지는 숫양 뿔나팔(쇼파르)과 영적 각성의 부르심

〔절기 06 · 가을 제1절기〕 나팔절(욤 테루아) — 일곱째 달 첫날 울려 퍼지는 숫양 뿔나팔(쇼파르)과 영적 각성의 부르심 (· Yom Teruah) · 레위기 23:23–25 · 민수기 29:1 · 데살로니가전서 4:16

1. 절기 개관 · 구속사의 시간표와 고고학·농경 배경

1-A 절기의 시기 및 농경·역사적 자리 (유대 종교력 제7월(에다님월·티슈리월) 1일 (태양력 9~10월 초하루 · 민간력 새해))
성경의 절기 달력에서 봄 절기(제1월~제3월)가 끝난 뒤 제4월, 제5월, 제6월의 석 달 동안은 아무런 절기가 없는 긴 여름의 공백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다 성경의 완전수인 '일곱째 달(티슈리월)' 초하루가 밝아 오면, 가을 3대 절기(나팔절·대속죄일·초막절)의 문을 여는 첫 신호탄으로 온 땅에 숫양 뿔나팔(쇼파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고고학적으로는 1970년 예루살렘 성전산 남서쪽 모퉁이 아래에서 기원전 1세기 헤롯 성전 시대의 석회암 난간돌이 발굴되었는데, 거기에는 선명한 히브리어로 '레베이트 하트키아 레하크(… ·
나팔 부는 자리로, 구별하기 위하여)'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어 성전 꼭대기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 안식일과 절기를 알렸던 생생한 역사를 증언합니다.

1-B 절기의 구속사적 중심 메시지
긴 여름의 침묵을 깨뜨리고 완전수인 일곱째 달 첫날에 온 땅을 흔들며 울려 퍼지는 나팔절(욤 테루아)의 나팔 소리는, 세상의 잠에 취한 영혼들을 일깨워 대속죄일의 회개와 초막절의 완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각성의 음성이며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울릴 마지막 나팔을 가리킵니다.

1-C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성취 대조표
구분	구약 본문 및 절기 규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취
제1마디 · 나팔을 불어 기념할 안식일	레위기 23:23–25 · 민수기 29:1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에 모든 노동을 멈추고 나팔 소리의 외침(테루아)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됨을 구하는 성회
제2마디 · 아브라함의 숫양 뿔나팔(쇼파르)	창세기 22:13 · 민수기 10:1–10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수풀에 뿔이 걸렸던 대속의 숫양을 기억하게 하는 쇼파르와 회집·행진·구원을 알리는 은나팔
제3마디 · 영적 각성과 주 재림의 마지막 나팔	에베소서 5:14 · 데살로니가전서 4:16 · 고린도전서 15:51–52	잠든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나팔 소리이며, 장차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그리스도의 재림 예고

---

2. 나란히 읽는 말씀 (레위기 23:23–25 · 민수기 29:1 · 데살로니가전서 4:16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레 23:24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월 곧 그 달 일일로 안식일을 삼을찌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 민 29:1 칠월에 이르러는 그 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 살전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Lev 23:24 Speak to the children of Israel, saying, 'In the seventh month,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shall be a solemn rest to you, a memorial of blowing of trumpets, a holy convocation.'
- Num 29:1 In the seventh month,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you shall have a holy convocation; you shall do no servile work: it is a day of blowing of trumpets to you.
- 1Thess 4:16 For the Lord himself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God's trumpet.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오순절 밀 추수가 끝난 뒤 석 달 동안 이어지던 뜨거운 여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성경에서 안식과 완전을 뜻하는 '일곱째 달'의 첫날 아침이 밝아 옵니다. 바로 가을의 세 절기(나팔절·대속죄일·초막절)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절기, '나팔절'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날을 '시크론 테루아( )', 곧 '나팔 소리의 외침으로 기억하는 날'이라 부릅니다.

이날 성전과 온 땅에서 울려 퍼지던 나팔은 구부러진 숫양의 뿔로 만든 '쇼파르()'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금관악기가 아니라 투박하게 휘어진 숫양의 뿔로 나팔절을 깨우라고 하셨을까요? 유대 전승과 성경의 맥락은 우리를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으로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 위에 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마리의 숫양이 수풀에 '그 뿔이 걸려'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려졌습니다(창 22:13). 그러므로 나팔절에 숫양의 뿔나팔을 길게 불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마다, 그것은 '주여, 모리아산에서 우리 대신 죽임당한 그 대속의 어린양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없는 기도였습니다.

동시에 이 나팔 소리는 사람들의 귀를 향해서는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룩한 자명종이었습니다. 나팔절은 홀로 떨어져 있는 날이 아니라, 정확히 열흘 뒤에 찾아올 일 년 중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날인 '대속죄일(7월 10일)'을 준비시키는 첫 종소리입니다. 쇼파르 나팔은 세 가지 소리로 울립니다. 길게 뻗어 나가는 '테키아(깨어나라)', 가슴이 무너지듯 세 번 끊어지며 흐느끼는 '셰바림(통회하라)', 그리고 아홉 번 다급하게 몰아치는 경보음 '테루아(지금 돌이키라)'입니다. 구부러진 숫양의 뿔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빳빳이 섰던 내 마음을 겸손히 굽히고, 열흘 동안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 앞에 화해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구속사의 큰 그림에서 볼 때, 오순절(봄 절기의 끝)과 나팔절(가을 절기의 시작) 사이의 긴 여름은 성령이 임하신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시대(교회 시대)와 꼭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이 끝나는 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팔절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만큼, 오늘 내 영혼은 깨어 있는가?'

---

4. 본문을 여는 히브리어·헬라어 원어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TEPBible TAHOT〔WLC 기반〕 / SBLGNT · Strong 번호 병기)

4-1. 테루아 / 욤 테루아 (/ · H8643)
레위기 23장 24절, 민수기 29장 1절 '나팔을 불 날(day of blowing / awakening blast)'.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강렬한 나팔 소리와 백성들이 왕을 맞이하며 외치는 함성을 동시에 뜻하는 낱말입니다.

4-2. 쇼파르 (· H7782)
출애굽기 19장 16절, 레위기 25장 9절 '뿔나팔(ram's horn trumpet)'. 모리아산의 대속 숫양(창 22:13)과 시내산 강림 때 울려 퍼졌던 하늘의 나팔 소리를 상징하는 성경의 대표 악기입니다.

4-3. 엔 살핑기 데우 (ν σ λ π ι γ γ ι θ ε ο · G4536 + G2316)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하나님의 나팔로(with God's trumpet)'. 구약 나팔절의 모든 나팔 소리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종말론적 성취, 곧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마지막 나팔(고전 15:52)입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 〔관찰과 묵상〕
레위기 23장 24절의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시크론 테루아)'이라는 표현 앞에 머물러 봅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모리아산과 골고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쌍방의 '기억(시크론)'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일상의 타성을 깨뜨리는 하늘의 자명종, 테루아 (레 23:24)
여름 내내 무더위와 생업에 치여 무뎌졌던 영혼의 잠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달 첫날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위기는 큰 환난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 빠져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 나팔절은 세상의 소음에 묻혀 잠들었던 우리 영혼의 귀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각성의 날입니다.

STEP 02. 구부러진 숫양 뿔처럼 마음을 낮추어 회개를 준비하다 (민 29:1)
곧게 뻗은 은나팔과 달리 쇼파르는 불에 달구어 구부러진 숫양의 뿔로 만듭니다.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의 열흘은 내 고집과 교만을 굽히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풀지 못한 허물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은혜의 준비 기간입니다.
핵심 메시지: 하나님께서 기뻐 듣으시는 소리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며 겸손히 굽힌 마음의 소리입니다.

STEP 03.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소망하며 깨어 사는 성도 (살전 4:16)
봄 절기가 초림하신 예수님에 의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다면, 가을 절기의 첫머리인 나팔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살아 있는 약속입니다.
핵심 메시지: 성도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두려움으로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16)"

6-B 이어지는 절기 순례길
제06절기 나팔절(욤 테루아 · 7월 1일) → 열흘간의 경외와 회개 → 제07절기 대속죄일(욤 키푸르 · 7월 10일)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지금 내 삶 속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말씀의 찔림, 삶의 사건, 양심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2) 오늘 당장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신다면, 내가 가장 먼저 정리하고 화해해야 할 관계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6-D 마무리 기도
살아 계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분주함과 안일함에 취해 영적인 잠에 빠져 있던 저희의 귀를 나팔절의 말씀으로 열어 주옵소서. 모리아산의 숫양이요 골고다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교만하게 굳어진 마음을 겸손히 굽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나팔 소리를 기쁨과 거룩함으로 맞이하는 깨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기 07 · 가을 제2절기〕 대속죄일(욤 키푸르) — 일 년에 단 한 번 지성소 속죄소로 들어간 피와 아사셀 염소,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속죄

〔절기 07 · 가을 제2절기〕 대속죄일(욤 키푸르) — 일 년에 단 한 번 지성소 속죄소로 들어간 피와 아사셀 염소,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속죄 (· Yom Kippur) · 레위기 16:1–34 · 레위기 23:26–32 · 히브리서 9:11–12

1. 절기 개관 · 구속사의 시간표와 고고학·농경 배경

1-A 절기의 시기 및 농경·역사적 자리 (유대 종교력 제7월(티슈리월) 10일 (나팔절 후 열흘째 · 일 년 중 가장 거룩한 날))
레위기 전체 27장의 정중앙(16장)에 놓인 심장부가 바로 '대속죄일(욤 하키푸림)' 규례입니다. 일 년 삼백육십오 일 가운데 삼백육십사 일 동안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휘장 안쪽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일곱째 달 열흘날 단 하루, 대제사장은 화려한 금실·청색·자색 에봇과 보석 흉패를 모두 벗어 두고 가장 소박한 '거룩한 세마포 속옷(레 16:4)'만 입은 채, 향로의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의 숫염소 가운데 제비 뽑힌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아사셀 염소)는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다 고백하여 옮긴 뒤 광야 무인지경으로 영원히 떠나보냈습니다.

1-B 절기의 구속사적 중심 메시지
일 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이 금빛 예복을 벗고 흰 세마포 옷만 입은 채 지성소 속죄소(카포레트) 앞에 피를 뿌리고 아사셀 염소에게 백성의 모든 죄를 안수하여 광야 무인지경으로 떠나보냈듯,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1-C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성취 대조표
구분	구약 본문 및 절기 규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취
제1마디 · 흰 세마포 옷과 속죄소(카포레트)의 피	레위기 16:2–15	대제사장이 영화로운 예복을 벗고 흰 세마포 옷만 입은 채 향연과 피를 가지고 지성소 언약궤 위 속죄소 앞에 나아감
제2마디 · 두 마리 염소: 피 흘림과 죄를 지고 떠남	레위기 16:7–10, 20–22	한 염소는 피 흘려 하나님 앞의 죄책을 덮고(키페르), 아사셀 염소는 백성의 모든 죄를 머리에 짊어진 채 광야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음
제3마디 · 자기 피로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11–12 · 히브리서 10:19–20	해마다 반복하던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에파팍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지성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새롭고 산 길을 여심

---

2. 나란히 읽는 말씀 (레위기 16:1–34 · 레위기 23:26–32 · 히브리서 9:11–12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레 16:30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 레 23:27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찌니
- 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Lev 16:30 For on this day shall atonement be made for you, to cleanse you; from all your sins you shall be clean before Yahweh.
- Lev 23:27 Howbeit on the tenth day of this seventh month is the day of atonement: it shall be a holy convocation to you, and you shall afflict your souls; and you shall offer an offering made by fire to Yahweh.
- Heb 9:12 nor yet through the blood of goats and calves, but through his own blood, entered in once for all into the Holy Place, having obtained eternal redemption.

---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레위기 전체 스물일곱 장을 양쪽으로 펼치면 정확히 한가운데인 16장에 우뚝 서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 일 년 중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날인 '대속죄일(욤 키푸르)'입니다. 이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일손을 멈추고 금식하며('스스로 괴롭게 하며', 레 23:27) 성막 뜰 앞에 숨을 죽이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모든 예식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레 16:17).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놀랍게도 옷을 벗는 일이었습니다. 평소 그가 입던 황금 방울 달린 청색 겉옷과 열두 보석이 빛나는 흉패와 금패 달린 관을 모두 벗어 두고, 오직 하얀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바지와 세마포 띠만 입었습니다(레 16:4).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 인간의 화려한 영광은 조금도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 곧 낮고 겸손한 육신을 입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빌 2:6–8)을 천오백 년 전에 미리 보여 준 눈물겨운 그림이었습니다.

또한 이날 하나님께서는 두 마리의 숫염소를 가져다가 두 겹의 속죄 드라마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잡혀 그 피가 지성소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카포레트)' 위와 앞에 일곱 번 뿌려졌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어긴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으나,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가 그 율법의 정죄를 덮어 심판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시은좌, 히 4:16)'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은 살아 있는 두 번째 염소(아사셀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여 그 염소의 머리에 다 옮겨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 무인지경으로 끌고 가 영원히 놓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시 103:12)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시청각적 확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히브리서 9장 12절이 선포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두려움으로 들어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마 27:51). 이제 우리는 일 년에 하루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 본문을 여는 히브리어·헬라어 원어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TEPBible TAHOT〔WLC 기반〕 / SBLGNT · Strong 번호 병기)

4-1. 욤 하키푸림 / 키페르 (/ · H3725 / H3722)
레위기 23장 27절 '속죄일(Day of Atonements, 복수형)'. 동사 '카파르/키페르'는 대속의 값을 치러 죄책을 '덮다, 도말하다, 화목하게 하다'를 뜻하며, 복수형 '키푸림'은 완전하고 총체적인 속죄를 나타냅니다.

4-2. 카포레트 / 힐라스테리온 (· H3727 / λαστριον · G2435)
레위기 16장 14–15절 '속죄소(Mercy Seat, 시은좌)'. 언약궤를 덮는 순금 뚜껑으로, 헬라어 성경과 로마서 3장 25절('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힐라스테리온〕로 세우셨으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이 참된 속죄소이심을 밝힙니다.

4-3. 아사셀 (· H5799)
레위기 16장 8, 10, 26절 '아사셀을 위하여'. 히브리어 '에즈(염소)'와 '아잘(떠나가다, 완전히 사라지다)'이 결합된 말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 무인지경으로 완전히 떠나보내지는 속죄 염소(Scapegoat)입니다. 영문 밖에서 우리 죄를 지고 고난받으신 예수님(히 13:11–12)을 예표합니다.

4-4. 에파팍스 … 아이오니안 뤼트로신 (φπαξ … αωναν λτρωσιν · G2178 + G0166 + G3085)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해마다 되풀이해야 했던 구약 제사의 한계를 넘어,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구속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완전성을 선포합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관찰과 묵상〕
레위기 16장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라는 말씀 앞에 머물러 봅니다. 우리의 속죄를 이루는 일에 인간의 보탬은 단 1%도 들어갈 수 없었으며,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십자가의

지성소에 들어가 다 이루셨음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영광의 옷을 벗고 세마포 옷만 입으신 대제사장의 겸손 (레 16:4 · 빌 2:7)
대제사장은 속죄를 이루기 위해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겉옷을 벗고 순결한 흰 세마포 옷만 입은 채 피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영광을 비우시고 낮고 천한 육신을 입으심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핵심 메시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은 군림하는 화려함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를 비우신 십자가의 겸손에서 나왔습니다.

STEP 02. 피로 덮으시고(첫째 염소) 광야로 멀리 옮기시는(둘째 염소) 완전한 용서 (레 16:15–22)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 염소로는 속죄의 깊이를 다 보여 줄 수 없으셔서 두 마리 염소를 세우셨습니다. 첫째 염소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죄책을 덮으셨고, 둘째 아사셀 염소로 우리 양심을 짓누르던 죄의 짐까지 광야 저편으로 영원히 떠나보내셨습니다.
핵심 메시지: 주님이 주시는 사죄는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하실 뿐 아니라, 내 어깨의 죄책감까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떠나보내시는 완전한 해방입니다.

STEP 03. 찢어진 휘장 사이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다 (히 9:12 · 10:19–20)
구약 백성은 일 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이 살아 나오기만을 밖에서 떨며 기다렸으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지성소 휘장을 찢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의 품으로 담대히 들어갑니다.
핵심 메시지: 대속죄일의 성취는 두려움의 거리감을 허물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우리의 가장 안전한 안식처로 열어 주었습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12)"

6-B 이어지는 절기 순례길
제07절기 대속죄일(욤 키푸르 · 7월 10일 사죄의 은총) → 제08절기 초막절·수장절(수코트 · 7월 15일 장막의 기쁨)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하나님께서는 아사셀 염소처럼 나의 지난 죄를 이미 광야 무인지경으로 멀리 떠나보내셨는데, 나는 아직도 사함받은 과거의 후회와 정죄감을 다시 붙들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2) 휘장을 찢으시고 열어 놓으신 '은혜의 보좌(시은좌)' 앞으로 오늘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가지고 나아갈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6-D 마무리 기도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벗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저희의 모든 죄를 덮으셨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음을 굳게 믿사오니, 이제 정죄의 두려움을 벗어 버리고 찢어진 휘장 사이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기 08 · 가을 제3절기〕 초막절·수장절(수코트) — 광야의 초막과 실로암 물 붓기 예식, 세상의 빛과 생수로 오신 예수님

〔절기 08 · 가을 제3절기〕 초막절·수장절(수코트) — 광야의 초막과 실로암 물 붓기 예식, 세상의 빛과 생수로 오신 예수님 (· Sukkot) · 레위기 23:33–43 · 요한복음 7:37–38 · 요한복음 8:12

1. 절기 개관 · 구속사의 시간표와 고고학·농경 배경

1-A 절기의 시기 및 농경·역사적 자리 (유대 종교력 제7월(티슈리월) 15일 ~ 21일 및 제8일 성회 (가을 추수 완결 대축제))
성경은 일 년 절기 달력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축제를 두 이름으로 부릅니다. 광야 사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초막(수코트)에 거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한다 하여 초막절(레 23:34, 42)이라 부르고, 가을에 포도와 무화과와 올리브 등 토지의 모든 소산을 거두어 창고에 갈무리(수장, 收藏)한 뒤 지킨다 하여 수장절(출 23:16, 하그 하아시프)이라 부릅니다. 특히 제2성전기 초막절에는 성전에서 두 가지 장엄한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나는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주전자로 실로암 못의 물을 길어와 나팔 소리 속에 번제단 옆에 붓는 '물 붓기 예식(니수크 하마임)'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인의 뜰에 세운 네 개의 거대한 황금 촛대에 불을 밝혀 온 예루살렘 밤하늘을 낮처럼 환하게 비추는 '물 길기 축제의 점등식(심하트 베이트 하쇼에바)'이었습니다.

1-B 절기의 구속사적 중심 메시지
대속죄일로 모든 죄를 씻음 받은 백성이 닷새 뒤인 칠월 보름부터 이레 동안 나뭇가지 초막(수카)에 거하며 광야 사십 년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해의 모든 추수를 감사했듯,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요 1:14)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 같은 인생길의 생수와 빛이시며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이십니다.

1-C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성취 대조표
구분	구약 본문 및 절기 규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취
제1마디 · 별빛이 보이는 광야의 초막(수카)	레위기 23:39–43 · 신명기 16:13–15	안락한 돌집에서 나와 나뭇가지로 지붕을 얹은 초막에 이레 동안 거하며, 우리의 참된 지붕은 건물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임을 고백함
제2마디 · 초막절 끝날에 외치신 생수와 세상의 빛	요한복음 7:37–39 · 요한복음 8:12	실로암 물 붓기 예식의 절정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치시고, 초막절 거대한 촛대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선포하심
제3마디 ·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말씀과 새 예루살렘	요한복음 1:14 · 요한계시록 7:9–10 · 21:3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에스케노센) 성육신의 은총과,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는 영원한 초막절의 완성

---

2. 나란히 읽는 말씀 (레위기 23:33–43 · 요한복음 7:37–38 · 요한복음 8:12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레 23:42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찌니
- 레 23:43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 요 7: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Lev 23:42 You shall dwell in booths seven days; all who are native-born in Israel shall dwell in booths;
- Lev 23:43 that your generations may know that I made the children of Israel to dwell in booths, when I brought them out of the land of Egypt: I am Yahweh your God.

- John 7:37 Now on the last and greatest day of the feast, Jesus stood and cried out, 'If anyone is thirsty,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 Rev 21:3 I heard a loud voice out of heaven saying, 'Behold, God's dwelling is with men, and he will dwell with them, and they will be his people, and God himself will be with them as their God.'

---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칠월 열흘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로부터 꼭 닷새 뒤인 칠월 보름날 일 년 중 가장 기쁨이 넘치는 대축제인 '초막절(수코트, 수장절)'을 맞이합니다! 레위기 23장 40절은 명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죄 사함의 은혜(대속죄일)를 입은 성도에게 찾아오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기쁨(초막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가을 추수 감사절에 백성들에게 명하신 행동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창고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 찬 바로 그때, 튼튼하고 안락한 돌집에서 나와 마당이나 지붕 위에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엮은 임시 장막, 곧 '초막(수카)'에 들어가 이레 동안 살라는 것입니다! 초막의 지붕은 나뭇가지 사이로 밤하늘의 별빛이 내다보일 만큼 성글게 덮어야 했습니다. 왜 가장 부요해진 가을 추수 끝에 바람이 숭숭 통하는 초막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내 힘과 내 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신 8:17)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던 광야 사십 년 동안 우리를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오늘 우리 인생의 진짜 지붕도 돌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임을 온몸으로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펼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초막절 한복판에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극적으로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초막절 이레 동안 매일 아침 제사장은 황금 주전자에 실로암 못의 물을 길어 성전 제단에 부으며 이사야 12장 3절('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을 노래했습니다. 바로 그 예식이 절정에 달하던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 우뚝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 7:37–38)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던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 지금 너희 앞에 서 계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밤을 밝히던 성전 여인의 뜰의 거대한 네 금촛대 앞에서 다시 외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성육신의 신비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에스케노센, 장막을 치시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친히 육신의 초막을 입고 이 광야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인류 구속사의 대단원을 영원한 초막절의 완성으로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스케네)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절기가 향해 달려가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

4. 본문을 여는 히브리어·헬라어 원어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TEPBible TAHOT〔WLC 기반〕 / SBLGNT · Strong 번호 병기)

4-1. 수코트 / 수카 (/ · H5521)
레위기 23장 34, 42절 '초막절 / 초막(booths / tabernacles)'. 나뭇가지와 잎사귀로 엮어 만든 소박한 임시 거처로, 광야 나그네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보호 아래 살았던 은혜를 상징합니다.

4-2. 하그 하아시프 (· H2282 + H0614)
출애굽기 23장 16절, 34장 22절 '수장절(Feast of Ingathering)'. 동사 '아사프(거두어들이다, 모으다)'에서 온 말로,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알곡과 열매를 곳간에 거두어들이는 최종 추수 감사절이자 구속사 마지막 날의 알곡 추수를 예표합니다.

4-3. 에스케노센 엔 헤민 (σ κ ν ω σ ε ν ν μ ν · G4637)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dwelt / pitched His tabernacle among us)'와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장막(스케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육신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임마누엘을 뜻합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 〔관찰과 묵상〕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제사장이 실로암 물을 제단에 붓고 난 뒤 빈 금주전자가 멈추어 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음성에 머물러 봅니다. 화려한 명절 축제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목마른 인생들을 향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는 주님의 초대를 묵상해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가장 풍성한 추수의 날에 가장 소박한 초막으로 들어가다 (레 23:39–43)
창고에 수확이 가득 찼을 때 돌집에 앉아 자만하지 않고, 별빛이 보이는 나뭇가지 초막에 들어가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의 지혜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는 영원한 요새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지붕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핵심 메시지: 성도의 감사는 창고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고, 광야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데서 나옵니다.

STEP 02. 광야의 목마름과 어둠을 끝내시는 생수와 빛이신 그리스도 (요 7:37–38 · 8:12)
초막절의 물 붓기 예식과 성전 큰 촛대의 불빛은 모두 광야에서 반석의 물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도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생명의 빛이 비칩니다.
핵심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광야 인생길의 갈증을 해갈하시는 생수요 어둠을 몰아내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STEP 03. 나그네 장막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계 7:9–10 · 21:3–4)
이 땅의 삶은 잠시 머물다 걷어 내는 광야의 초막과 같으나,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눈물을 닦아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초막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초막절의 신앙은 이 땅을 나그네처럼 가볍게 살되,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을 뜨거운 소망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37-38)"

6-B 이어지는 절기 순례길
제08절기 초막절·수장절(수코트) → 구속 역사 절기: 제09절기 부림절(푸림) & 제10절기 수전절(하누카)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나는 내 삶을 지켜 주는 진짜 지붕이 내가 쌓아 올린 은행 잔고나 집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광야 사십 년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라고 믿습니까?
2) 오늘 내 마음 깊은 곳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내가 헛되이 기웃거리던 세상의 우물을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마셔야 할 생수는 무엇입니까?

6-D 마무리 기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주 예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목마른 저희에게 성령의 생수가 되어 주시고 어두운 밤길에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손에 주신 모든 수확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장막이 걷히는 날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초막절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기 09 · 구속 역사 절기〕 부림절(푸림) — 죽음의 제비(푸르)가 구원의 잔치로 뒤집힌 역전의 날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선물

〔절기 09 · 구속 역사 절기〕 부림절(푸림) — 죽음의 제비(푸르)가 구원의 잔치로 뒤집힌 역전의 날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선물 (· Purim) · 에스더 9:20–28 · 에스더 4:14–16

1. 절기 개관 · 구속사의 시간표와 고고학·농경 배경

1-A 절기의 시기 및 농경·역사적 자리 (유대 종교력 제12월(아달월) 14일 ~ 15일 (태양력 2~3월 · 봄 유월절 한 달 전))
주전 5세기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크세르크세스 1세) 왕 시대에 일어난 역사적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고고학적으로는 1907년 프랑스 발굴단이 시리아·메소포타미아 유적에서 아카드어로 '푸루(pru, 돌로 만든 작은 정육면체 제비 주사위)'가 새겨진 주전 9세기 유물을 발굴함으로, 에스더 3장 7절과 9장 24절의 '부르 곧 제비(Pur, that is, the lot)'가 고대 페르시아·메소포타미아 현장의 정확한 역사적 용어였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하만은 첫째 달(니산월)에 제비를 던져 열두째 달(아달월) 13일을 유다인 진멸의 날로 뽑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열한 달의 시간 동안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사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영원한 잔치와 구제의 날 '부림절(푸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1-B 절기의 구속사적 중심 메시지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던졌던 죽음의 제비 '푸르(Pur)'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통해 오히려 원수가 자기가 세운 나무에 달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구원의 날로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찬양하며 이웃과 가난한 자에게 선물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1-C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성취 대조표
구분	구약 본문 및 절기 규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취
제1마디 · 하만이 던진 죽음의 제비(푸르)	에스더 3:7–13 · 잠언 16:33	원수 하만이 유다 민족을 하루아침에 멸절시키려고 제비(푸르)를 던져 아달월 13일을 학살의 날로 정함
제2마디 · 금식의 기도와 보이지 않는 섭리의 역전	에스더 4:14–16 · 에스더 6:1–10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사흘 금식 기도와 왕의 잠 못 이루는 밤을 통해 하만의 계교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역전(나하포크 후)
제3마디 ·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날	에스더 9:20–22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은 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삼고, 서로 예물을 주며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선물을 나누어 줌

---

2. 나란히 읽는 말씀 (에스더 9:20–28 · 에스더 4:14–16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에 9:22 이 달 이 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 에 9:26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좇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에스더의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본 것과 당한 것을 인하여
- 잠 16:33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Esth 9:22 as the days wherein the Jews had rest from their enemies, and the month which was turned to them from sorrow to gladness, and from mourning into a good day; that they should make them days of feasting and gladness, and of sending portions one to another, and gifts to the poor.
- Esth 9:26 Therefore they called these days Purim, after the name of Pur. Therefore because of all the words of this letter, and of that which they had seen concerning this matter, and that which had come to them,
- Prov 16:33 The lot is cast into the lap, but its every decision is from Yahweh.

---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레위기 23장의 모세 율법 절기 외에, 구약 역사의 후반부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로 새롭게 세워진 두 절기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에 탄생한 '부림절(푸림)'과 헬라 시대에 탄생한 '수전절(하누카)'입니다. 그중 유대 종교력의 마지막 열두째 달(아달월) 보름에 지키는 부림절은 에스더서 전체가 그 기원을 증언하는 '역전의 절기'입니다.

이름부터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부림()'이란 아카드어와 페르시아어로 주사위나 제비를 뜻하는 '부르(푸르, Pur)'의 복수형입니다. 유다인을 미워하던 총리 하만이 유다 민족을 씨도 남기지 않고 멸절시킬 길일을 고르려고 점술가들을 불러 제비(푸르)를 던졌는데, 그때 뽑힌 날이 열두째 달 13일이었습니다(에 3:7). 하만은 제비가 자기 뜻대로 뽑혔다고 비웃었겠지만, 잠언 1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첫째 달에 던진 제비가 가장 마지막 열두째 달로 나오는 바람에, 유다 백성에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구원의 조서를 전국에 다시 보낼 열한 달의 귀한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겉으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입니다. 그러나 책장을 넘길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장면을 움직이고 계심이 눈부시게 드러납니다. 온 유다 백성이 에스더와 함께 사흘 밤낮을 금식하며 부르짖자,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서 잠이 달아나고 우연히 펼친 역대 일기책에서 모르드개의 공로가 발견됩니다(에 6:1).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하만이 오십 규빗 높이로 세웠던 나무에 오히려 하만 자신이 매달리고, 왕의 인장반지가 모르드개의 손에 끼워져 생명의 새 조서가 제국 전역으로 달려 나갑니다.

에스더 9장 1절은 그날의 기적을 히브리어 두 단어 '나하포크 후( )', 곧 '그 날이 도리어 뒤집혔더라(반전되었더라)!'로 요약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며 세 가지를 명했습니다(에 9:22). 첫째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을 감사하며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할 것, 둘째는 이웃과 서로 음식 예물(미슐로아흐 마노트)을 나눌 것, 그리고 셋째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구제할 것(마타노트 라에브요님)'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건짐 받은 공동체는 결코 자기들끼리만 배불리 먹고 끝내지 않으며,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식탁까지 기쁨이 흘러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

4. 본문을 여는 히브리어·헬라어 원어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TEPBible TAHOT〔WLC 기반〕 / SBLGNT · Strong 번호 병기)

4-1. 푸르 / 푸림 (/ · H6332)
에스더 3장 7절, 9장 24–26절 '부르 곧 제비 / 부림'. 아카드어 '푸루(pru, 돌 주사위·제비)'에서 온 낱말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던진 운명의 주사위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구원의 도구로 뒤집힌다는 신앙 고백이 절기 이름 자체에 새겨져 있습니다.

4-2. 나하포크 후 (· H2015, 닢알 부정사 절대형)
에스더 9장 1절 '도리어 해하게 한 날이라(그것이 완전히 뒤집혔더라)'. 유다인을 삼키려던 죽음의 날이 오히려 대적을 이기는 승리의 날로, 슬픔이 기쁨으로(에 9:22) 180도 역전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가리키는 에스더서의 핵심 열쇠 말입니다.

4-3. 우마타노트 라에브요님 (· H4979 + H0034)
에스더 9장 22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and gifts to the poor)'. 부림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실천 규례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가난한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나눔으로 흘려보내는 자비의 행위입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 〔관찰과 묵상〕
에스더 4장 14절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와 에스더 9장 22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사이에 머물러 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어두운 밤에도, 믿음의 기도와 결단을 통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집고 계시는 주님의 섭리를 묵상해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제비는 사람이 던지나 역사를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 3:7 · 9:24–26)
세상의 권력자 하만이 제비를 던져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날짜를 잡아 놓았을 때, 세상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더 크신 구원 섭리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에 불과합니다.
핵심 메시지: 우연을 가장한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역사의 결정권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STEP 02. 금식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 운명을 뒤집다 (에 4:16 · 9:1)
에스더와 유다 백성은 원수의 조서 앞에서 절망만 하지 않고 사흘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기도는 막다른 골목에 갇힌 인생의 판도를 통째로 뒤집으시는(나하포크)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핵심 메시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며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리의 역전은 시작됩니다.

STEP 03. 구원의 기쁨을 가난한 이웃의 식탁으로 흘려보내다 (에 9:22)
부림절의 감사는 나 혼자 살아남았다고 안도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특히 잔칫상을 차릴 형편이 못 되는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어 모두가 함께 웃게 하는 날입니다.
핵심 메시지: 참된 구원의 축제는 내 기쁨이 가난한 이웃의 눈물을 닦아 주는 구제로 이어질 때 완성됩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에스더 9:22)"

6-B 이어지는 절기 순례길
제09절기 부림절(푸림 · 섭리의 역전) → 제10절기 수전절(하누카 · 성전 정결과 등불) → 제11절기 희년(요벨)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한 문제 가운데, '슬픔을 기쁨으로 뒤집으시는(나하포크)' 주님의 섭리를 믿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맡겨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위기를 건져 주셨던 지난 부림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내가 따뜻한 선물이나 도움을 나누어 주어야 할 연약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6-D 마무리 기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던진 죽음의 제비를 구원의 잔치로 뒤집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에스더처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그 은혜를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들과 아낌없이 나누는 부림절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기 10 · 성전 정결 절기〕 수전절(하누카) — 더럽혀진 제단을 허물고 다시 밝힌 성전 등불과 솔로몬 행각을 거니신 참 성전 예수님

〔절기 10 · 성전 정결 절기〕 수전절(하누카) — 더럽혀진 제단을 허물고 다시 밝힌 성전 등불과 솔로몬 행각을 거니신 참 성전 예수님 (· Chanukkah) · 요한복음 10:22–30 · 다니엘 11:31–32

1. 절기 개관 · 구속사의 시간표와 고고학·농경 배경

1-A 절기의 시기 및 농경·역사적 자리 (유대력 제9월(기슬르월) 25일부터 8일간 (태양력 12월 겨울 · 빛의 절기))
구약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 사이의 '신구약 중간기(주전 2세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주전 167년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기슬르월(9월) 25일에 성전 번제단 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 뒤 부정한 돼지 피를 뿌려 성전을 모독했습니다(단 11:31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이에 제사장 맛다디아와 그의 아들 유다 마카베오가 분연히 일어나 3년 만인 주전 164년 기슬르월 25일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우상의 제물로 더럽혀진 번제단 돌을 완전히 헐어 낸 뒤 율법대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다시 쌓고 성전 등불을 밝혀 이레를 넘어 여덟 날 동안 성전 봉헌(하누카, 수전절)을 지켰습니다(마카베오상 4:36–59).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절기를 '빛의 절기(Lights)'라 불렀습니다.

1-B 절기의 구속사적 중심 메시지
헬라 제국의 폭군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 성전이 더럽혀지고 등불이 꺼졌던 어두운 신구약 중간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등불을 다시 밝혔던 '수전절(하누카)'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야말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참된 성전'이시며 성도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선한 목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1-C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성취 대조표
구분	구약 본문 및 절기 규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취
제1마디 · 더럽혀진 제단을 헐고 다시 밝힌 등불	다니엘 11:31–32 · 마카베오상 4:42–59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 속에서도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는 말씀대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등불을 다시 밝힘
제2마디 · 겨울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신 예수님	요한복음 10:22–26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을 때(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며 메시아의 정체를 밝히심
제3마디 ·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참 성전과 영원한 안전	요한복음 10:27–36 · 고린도전서 3:16	돌 성전의 중수(하누카)를 넘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하기아센, 봉헌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전이 된 성도를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지 못함

---

2. 나란히 읽는 말씀 (요한복음 10:22–30 · 다니엘 11:31–32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요 10:22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 요 10:23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 요 10:28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 요 10: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John 10:22 It was the Feast of the Dedication at Jerusalem.
- John 10:23 It was winter, and Jesus was walking in the temple, in Solomon's porch.
- John 10:28 I give eternal life to them. They will never perish, and no one will snatch them out of my hand.
- John 10:36 do you say of him whom the Father sanctified and sent into the world, 'You blaspheme,'

because I said, 'I am the Son of God'?

---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요한복음 10장 22절을 펼치면 짧지만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여기서 '수전절(修殿節, 히브리어 하누카)'이란 말 그대로 '무너지고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여 하나님께 새롭게 봉헌한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 절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알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전혀 새로운 빛으로 살아납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백육십 년 전(주전 167년), 시리아 헬라 제국의 왕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의 신앙을 뿌리 뽑으려고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하고 성경 두루마리를 불태웠습니다. 심지어 아홉째 달 스무닷새 날에는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 위에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부정한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내며 성전을 철저히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11장 32절이 예언한 그대로,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믿음을 지킨 유다 마카베오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 정확히 삼 년 뒤 같은 날(주전 164년 기슬르월 25일) 성전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피로 오염된 제단 돌들을 통째로 헐어 내고, 율법대로 철 연장 대지 않은 새 돌을 가져다 제단을 다시 쌓았으며, 대제사장의 인장이 찍힌 순결한 감람유 한 병을 찾아 성전의 금촛대(메노라)에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탈무드 전승에 따르면 하루 치밖에 안 되던 그 작은 기름이 새 기름을 짜서 준비할 때까지 여덟 날 동안 꺼지지 않고 타올랐다고 하여, 수전절은 여덟 날 동안 등불을 밝히는 '빛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수전절 겨울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전 동편의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다그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밝히 말하시오!' 마카베오처럼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회복할 정치적 영웅이 맞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수전절의 핵심 단어를 들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하기아센, 곧 성전으로 봉헌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사람의 손으로 수리하고 봉헌한 돌 성전은 세월이 흐르면 다시 더럽혀지고 마침내 무너질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참된 성전'(요 2:19–21)이십니다! 그리고 그 참 성전이신 주님께서 수전절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자기 양들을 향해 가장 따뜻한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27–30)

---

4. 본문을 여는 히브리어·헬라어 원어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TEPBible TAHOT〔WLC 기반〕 / SBLGNT · Strong 번호 병기)

4-1. 하누카 / 타 엔카이니아 (· H2598 / τ γ κ α ν ι α · G1456)
요한복음 10장 22절 '수전절(Feast of the Dedication / Renewal)'. 히브리어 '하누카'는 집이나 제단이나 성전을 새롭게 봉헌하여 시작하다(한나크)라는 뜻이며, 헬라어 '엔카이니아'는 '새롭게 하다(카이노스)'에서 나온 말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봉헌한 절기를 가리킵니다.

4-2. 혼 호 파테르 헤기아센 (ν π α τ ρ γ α σ ε ν · G0037)
요한복음 10장 36절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whom the Father sanctified / consecrated)'. 헬라어 구약이 성전과 제단의 봉헌(하누카)을 번역할 때 쓰던 동사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봉헌하신 참된 성전이심을 보여 줍니다.

4-3. 우크 하르파세이 티스 아우타 에크 테스 케이로스 무 (ο κ ρ π σ ε ι τ ι α τ κ τ χ ε ι ρ μ ο υ · G0726 + G5495)
요한복음 10장 28절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어떤 안티오코스 같은 폭군이나 어둠의 권세도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이중 손안에 붙들린 성도의 생명을 결코 강탈할 수 없다는 절대적 안전의 선언입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관찰과 묵상〕
요한복음 10장 22절의 짧은 배경 설명 '때는 겨울이라(카이 엔 케이몬)'와 23절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에 머물러 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불신앙으로 주님을

둘러쌌던 그 자리에서도, 자기 양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성전 행각을 거니시며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온기를 묵상해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우상에게 더럽혀진 제단을 헐어 내고 새 돌로 쌓는 결단 (단 11:32)
세상의 타협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적당히 덧칠하는 것으로는 참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다 마카베오가 우상의 제단을 헐어 내고 새 돌로 제단을 다시 쌓았듯, 회개로 옛 제단을 허물고 말씀 위에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핵심 메시지: 영적 회복(수전절)은 타협했던 마음의 성소를 정결하게 청소하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STEP 02. 하루 치의 작은 기름이라도 순결하게 드릴 때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찾아낸 것은 대제사장의 인장이 찍힌 작은 감람유 한 병뿐이었으나, 그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덟 날 동안 빛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작아 보여도 주님 앞에 구별된 순결한 헌신을 드릴 때 성령의 기름이 등불을 지키십니다.
핵심 메시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화려한 양이 아니라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믿음의 기름 한 병입니다.

STEP 03.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손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전 (요 10:28–30)
눈에 보이는 돌 성전은 외적의 침략에 무너질 수 있었으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보내신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손에 붙들린 성도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매서운 겨울을 지날 때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핵심 메시지: 참된 수전절의 평안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힘'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28)"

6-B 이어지는 절기 순례길
제10절기 수전절(하누카 · 성전 정결) → 제11절기 안식년과 희년(요벨 · 온 피조물의 회복과 주의 은혜의 해)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전 3:16) 하셨는데, 지금 내 마음의 성전 안에서 헐어 내야 할 세상의 타협과 다시 불을 밝혀야 할 기도와 말씀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2) 인생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올 때,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내게 어떤 실제적인 용기와 위로를 줍니까?

6-D 마무리 기도
참된 성전이시며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 예수님, 세상의 분주함과 유혹에 흔들려 기도의 등불이 희미해졌던 저희 심령의 성전을 오늘 다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저희 안에 꺼지지 않는 믿음과 사랑의 등불을 다시 밝혀 주시고, 인생의 어떤 매서운 겨울 속에서도 주님의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음을 믿고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기 11 · 안식의 완성〕 안식년과 희년(요벨) — 오십 년마다 울리는 자유의 뿔나팔, 땅과 사람의 회복, 주님의 은혜의 해

〔절기 11 · 안식의 완성〕 안식년과 희년(요벨) — 오십 년마다 울리는 자유의 뿔나팔, 땅과 사람의 회복, 주님의 은혜의 해 (· Yovel / Jubilee) · 레위기 25:8–22 · 이사야 61:1–2 · 누가복음 4:18–21

1. 절기 개관 · 구속사의 시간표와 고고학·농경 배경

1-A 절기의 시기 및 농경·역사적 자리 (안식년(7년)을 일곱 번 지난 49년째의 7월 10일 대속죄일에 선포되는 제50년 (희년))
성경의 안식 체계는 삼중 나선으로 확장됩니다. 매주 일곱째 날이 '안식일(샤바트)'이라면, 매 일곱째 해는 가나안 땅 자체도 여호와 앞에서 파종과 전정을 멈추고 쉬며 저절로 난 소출을 가난한 자와 종과 나그네와 들짐승까지 함께 나누어 먹는 '안식년(셰나트 샤바톤, 레 25:1–7)'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을 일곱 번(7×7=49년) 지낸 뒤 맞이하는 오십 년째 해가 바로 '희년(요벨, 레 25:8–55)'입니다. 히브리어 '요벨()'은 본래 '숫양의 뿔나팔'을 뜻하며, 여기서 라틴어 '유빌레우스(Jubileus)'와 영어 '주빌리(Jubilee, 희년·환희)'가 유래했습니다. 특별히 희년의 나팔이 울리는 정확한 날이 1월 1일이 아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 곧 대속죄일(레 25:9)'이라는 점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속량되는 대속의 은혜 위에서만 인간과 사회와 피조 세계의 진정한 해방(희년)이 시작됨을 보여 줍니다.

1-B 절기의 구속사적 중심 메시지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나 오십 년째 되는 해, 대속죄일에 숫양 뿔나팔(요벨)을 불어 온 땅에 자유를 공포하고 종 되었던 자와 잃어버렸던 기업을 본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희년'은,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 매인 인류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성취되었습니다.

1-C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성취 대조표
구분	구약 본문 및 절기 규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취
제1마디 · 대속죄일에 울리는 희년의 뿔나팔	레위기 25:8–10	일곱 안식년(49년)을 계수한 뒤 칠월 십일 대속죄일에 전국에 뿔나팔(쇼파르 테루아)을 크게 불어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고 온 땅에 자유(드로르)를 공포함
제2마디 ·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 기업과 가족의 회복	레위기 25:13–28, 39–41	가난하여 팔렸던 땅이 원주인의 기업으로 무상으로 돌아가고, 빚으로 종 되었던 형제가 자유를 얻어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감
제3마디 ·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신 예수님	이사야 61:1–2 · 누가복음 4:18–21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희년 예언('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

2. 나란히 읽는 말씀 (레위기 25:8–22 · 이사야 61:1–2 · 누가복음 4:18–21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레 25:9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찌며
- 레 25:10 제 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찌며
- 레 25:23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 눅 4: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 눅 4: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Lev 25:9 Then you shall send out the loud sound of the trumpet on the tenth day of the seventh month; in the day of atonement you shall sound the trumpet throughout all your land.

- Lev 25:10 You shall hallow the fiftieth year, and proclaim liberty throughout the land to all its inhabitants. It shall be a jubilee to you; and each of you shall return to his own property, and each of you shall return to his family.
- Lev 25:23 The land shall not be sold in perpetuity, for the land is mine; for you are strangers and sojourners with me.
- Luke 4:18 'The Spirit of the Lord is 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heal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release to the captives, recovering of sight to the blind, to deliver those who are crushed,'
- Luke 4:19 'and to proclaim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레위기 23장이 일 년 열두 달의 절기 달력이라면, 바로 뒤이어 나오는 레위기 25장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칠 년과 오십 년의 거대한 구속사 주기로 넓혀 놓습니다. 바로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과, 안식년을 일곱 번(49년) 보낸 뒤 오십 년째 해에 맞이하는 모든 절기의 최종 절정인 '희년(요벨)'입니다!

먼저 레위기 25장 9절에서 희년이 시작되는 날짜를 눈여겨보십시오. 오십 년째의 새 출발을 알리는 뿔나팔은 정월 초하루에 울리지 않고, 놀랍게도 '칠월 십일 속죄일'에 전국에서 울려 퍼집니다! 왜 하필 대속죄일에 희년 나팔을 불게 하셨을까요? 인간을 가장 깊이 얽어매고 있는 굴레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이며, 대제사장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화목하게 회복될 때(속죄일),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빚이 탕감되고 종 되었던 자가 풀려나는 진정한 해방(희년)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희년의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온 땅에 세 가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자유(드로르)의 선포'입니다. 가난과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 갔던 모든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자유의 몸이 되어 그리운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레 25:10, 41). 둘째는 '기업(아후자)의 회복'입니다. 흉년과 실패로 인해 남의 손에 넘어갔던 조상의 밭과 집이 원래 주인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23절의 위대한 선언처럼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과 만물의 진짜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땅의 안식과 하나님의 미리 주시는 복'입니다. '오십 년째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먹습니까?'라고 걱정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레 25:20–21). '내가 명하여 제육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삼 년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사야 61장의 희년 말씀을 낭독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희년)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책을 덮으신 뒤 온 인류 역사를 뒤흔드는 한마디를 선포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눅 4:21)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죄의 빚을 전액 탕감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는 살아 계신 희년이십니다!

---

4. 본문을 여는 히브리어·헬라어 원어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TEPBible TAHOT〔WLC 기반〕 / SBLGNT · Strong 번호 병기)

4-1. 요벨 (· H3104)
레위기 25장 10–13절 '희년(Jubilee)'. 본래 숫양의 뿔과 거기서 울려 퍼지는 길고 장엄한 나팔 소리를 뜻하는 히브리어로, 오십 년마다 온 땅의 부채를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며 땅을 본래 기업으로 되돌리는 하나님의 대회복의 해를 가리킵니다.

4-2. 드로르 (· H1865)
레위기 25장 10절, 이사야 61장 1절 '자유를 공포하라(proclaim liberty / release)'. 새가 새장에서 풀려나 창공을 막힘없이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완전한 해방을 뜻합니다. 신약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이를 '아페시스(φεσι · G0859, 포로 해방이자 죄 사함·빚 탕감)'로 번역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죄와 구속이 곧 참된 희년의 자유임을 밝힙니다.

4-3. 덱톤 엔이아우톤 퀴리우 (δεκτν νιαυτν κυρου · G1184 + G1763 + G2962)

누가복음 4장 19절 '주의 은혜의 해(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 the year of the Lord's favor)'. 구약 레위기 25장의 희년과 이사야 61장 2절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부활을 통해 지금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 선언입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 〔관찰과 묵상〕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는 말씀 앞에 깊이 머물러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모든 소유가 내 영구한 사유재산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 주신 청지기의 몫이며, 무엇보다 나그네인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느니라(이마디)' 하신 주님과 함께 머물고 있음을 묵상해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대속죄일의 피 흘림 위에서 울려 퍼지는 희년의 자유 (레 25:9–10)
희년의 나팔은 반드시 대속죄일에 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대속죄일을 이루셨기에, 이제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 매여 있던 모든 영혼에게 값없이 풀려나는 희년의 자유(아페시스)가 선포되었습니다.
핵심 메시지: 십자가의 용서가 있는 곳마다 얽매였던 영혼이 풀려나는 희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STEP 02.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 소유가 아닌 청지기로 사는 자유 (레 25:20–23)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쥐고 있지 않아도 제육년에 삼 년 치의 복을 미리 명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을 내 것이라 우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탐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핵심 메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만이 안식년에도 불안해하지 않는 하늘의 평안을 누립니다.

STEP 03. 오늘 우리를 통해 세상에 울려 퍼져야 할 '주의 은혜의 해' (눅 4:18–21)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과 자유를 얻은 성도는 이제 세상 속에서 작은 희년을 살아 내는 사람입니다. 내게 빚진 자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실패하여 주저앉은 이웃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나누어 주며, 복음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핵심 메시지: 예수님이 나의 희년이 되셨다면, 이제 나의 삶도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소망을 주는 작은 희년이 되어야 합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18-19)"

6-B 이어지는 절기 순례길
제11절기 안식년과 희년(요벨) → 성경 절기 총론(모아딤) → 제01절기 안식일(샤바트) 순환 묵상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의 은혜의 해(희년)'를 선포하사 나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나는 내게 잘못한 형제나 이웃의 작은 허물을 아직도 마음의 장부에 적어 두고 갚으라 다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2)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니라' 하신 말씀 앞에서, 오늘 내가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야 할 시간이나 물질은 무엇입니까?

6-D 마무리 기도
만물의 참 주인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희년이 되시는 주 예수님, 죄와 사망의 무거운 빚에 눌려 스스로는 결코 풀려날 수 없던 저희에게 십자가 보혈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손에 맡겨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받은 이 탕감과 회복의 은혜를 상처 입고 눌린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희년의 나팔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